



2026. 7. 21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새 대출규제 만지작...고객 주담대 받으면 '별도 부담금' 물리나

한국경제

<https://zrr.kr/cU5J9j>

고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이자와 별도로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부동산 금융정책의 새로운 화두... 주담대 비용을 높여 가계대출과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
현재 가계대출 규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등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이 중심

금융 당국, 은행권 홍콩 ELS 과징금 이달 결론 짓는다...이번주 안전소위

조선비즈

<https://zrr.kr/DoaHEb>

금융 당국이 은행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과징금 규모를 이번 달 확정
당초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던 과징금은 재심의 과정을 거치며 6000억원대까지 줄었고, 은행권에서는 추가 감경도 기대

부산은행 노조, 행동주의펀드의 'BNK-JB 합병 검토 제안'에 반발

부산일보

<https://zrr.kr/l4oPG8>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합병 검토를 제안한 가운데 BNK부산은행 노조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
특히 노조는 얼라인이 제시한 합병안에 대해 BNK의 주주들만 가치 희석을 부담하며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비판

카카오뱅크, 임단협 결렬 후 첫 단체행동...금융권 긴장 고조

디지털데일리

<https://zrr.kr/5YtVwq>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된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카카오 계열사 공동투쟁에 처음으로 참여
카카오 노사 간 갈등이 금융계열사로 확대된 가운데, 금융권 산별교섭까지 결렬되면서 금융·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노사 긴장이 고조

'동전부=부실' 낙인에 흑자기업도 퇴출 압박...재무상태 중시해야

이데일리

<https://zrr.kr/wRvrrJ>

코스닥시장 상장유지 기준 강화가 본격화하면서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확대
다만 동전주 중에서도 영업이익을 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저가주=한계기업'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레버리지 서학개미, 예탁금 상향에 '날벼락'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5ZNtne>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면서, 해외주식을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동일한 규제
대다수가 손실권에 진입해 예탁금을 늘릴 여유가 없는 투자자들은 당장 물타기마저 중단하거나 손절매 또는 기존 보유분의 비자발적인 장기보유 등 열악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

초고령사회 주목받는 유병자보험...개인화 '초점'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jdkT2K>

유병자보험이 그동안은 병력이 있는 가입자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가입자의 상황에 맞춰 보장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변화
유병자보험 시장이 커지면서 언더라이팅 능력도 중요해지며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보험사 역시 증가

'빚투 자금줄' 된 보험 약관대출...5개월새 2조 증가

한국경제

<https://zrr.kr/NuoWzc>

주요 10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56조5852억원으로 전월 대비 6980억원 늘고, 올해 1월과 비교하면 5개월 새 2조원 가까이 증가
한도 추가 축소를 포함한 약관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이미 올해 한 차례 축소된 만큼 추가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

비자, 기업용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공개... '오픈 USD' 첫 지원

머니투데이

<https://zrr.kr/ySjn2R>

비자가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송금·관리를 지원하는 기업용 플랫폼을 공개
해당 플랫폼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소각, 보관, 송금, 상환 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며, 은행 계좌를 연결해 사용자 권한과 승인 절차, 자금 운용 정책도 설정 가능

길어지는 코인 침체기... '큰손 트레저리'들도 매입 멈췄다

이데일리

<https://zrr.kr/xgrTaj>

비트코인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중인 디지털자산 재무전략 기업인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도 가상자산 매입을 늦추고 있는 모습
스트래티지는 지난주 보통주를 매각해 약 2억2500만달러 규모의 현금을 추가 확보, 비트마인은 확보한 자금을 자사주 매입에 우선 투입하면서 이더리움 매입 규모를 축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